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중대한 기회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실질적 이익을 창출하는 외교 기조 아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

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케이팝·영화·드라마 등 K-컬처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가와 국민 모두의 성과로 여기고 그 결실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경주를 비롯한 국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

제안이유

2025년 현재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와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세계 GDP의 60%와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비공식·자발적·합의제라는 운영 원리 아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해왔다.

대한민국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협력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역사적 장이 될 것이다.

경주는 천년고도의 역사와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이자,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반도체·바이오 산업의 도약, K-드라마와 영화, K-푸드, K-뷰티 등 K-컬처의 성취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며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각국 정상에게 대한민국을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지자체·국민과 함께 협력하여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간사) 정일영·이만희 (위원) 김태선, 김형동, 김재원, 유영하, 윤후덕, 이달희,
이병진,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경태, 조인철, 조정훈, 허성무, 홍기원